

-2023년 제3차-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정례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2023. 7. 5.(목), 15:00
- 장소: 성북구청 미래기획실(6층)
- 참석: 민간위원장 김연은 / 위원 정해숙, 김도훈, 전선미, 천종수, 채성현, 장민균
· 이향애, 이병준, 신운화, 김희자, 윤재성, 조일재, 김용진, 김운경 / 당연직 국
· 과장 및 의사관련 담당자
- 보고사항
 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운영 현황
 2. 성북구 나눔네트워크 사업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운영 현황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전담인력) 운영
- 안건
 1.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 (***)표시는 마이크 OFF 등 청취불능임

(개회 15시 00분)

I	개	회
---	---	---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복지연계팀장으로 발령받은 김경임입니다. 정례회의를 통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성북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잠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 협의체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인사와 자기소개를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과장 임정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복지기획팀장 (조연희) : 복지기획팀장 조연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수경)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수경입니다.

(참석자들 박수)

○돌봄지원팀장 (김미경) : 돌봄지원팀장 김미경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1인가구지원팀장 (김서연) : 안녕하세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 그리고 1개 팀이 더 있는데요. 자원봉사팀 나예주 팀장은 죄송스럽게도 지금 전문봉사단 교육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성북구민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제자리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식으로 소개된 바가 없어서요. 저희 사무국 간사님과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세성) :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성입니다. 2019년 10월에 민간 간사로 최초 채용되어서 올해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사무국장으로 변경되어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김성원) :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김성원 간사입니다.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성북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증진과 협의체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간사님께 계속 끊임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례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회선언, 위원장님 인사말씀, 신규위원 소개 후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심의를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인사말씀, 신규 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II 인사말씀

○민간위원장 (김연은) :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연은입니다.

(참석자들 박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고요. 1분기에는 코로나가 안 끝나서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1일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돼서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으로 많이 복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아마 그동안 진행 못 했던 여러 가지 대면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기 시작해서 다들 엄청 바쁘실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폭염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힘들지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되신 여러 주민분들, 이용자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지역사회보장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지역사회보장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매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복지교육국 임근수 국장님께서 처음 참석하셨고 또 국장님으로 처음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Ⅲ 개회선언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차 정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Ⅳ 위원소개

○민간위원장 (김연은) : 다음은 위원 현황인데요. 회의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 포함해서 명단은 2쪽, 3쪽에 걸쳐서 명단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건심의 후에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저희 회의 후반기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촉은 뒤에 진행하고요. 우리 변경된 당연직 위원님과 신규 위촉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위원님들은 인사 후에 간단한 인사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7월 1일 자로 발령받으신 당연직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잠깐 인사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 반갑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승진해서 복지교육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보장협의체가 그간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김연은 위

원장님과 동북지협의체 위원장이신 윤재성 회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다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역할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복지 분야는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구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3년이 넘으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해서 지역에서 어려움에 살고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가르쳐주시고 좋은 고견, 의견 많이 도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다음은 신규 위촉 위원입니다. 김도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북지사장님입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사회보장협의체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다음은 전선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선미 위원 : 성북구에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잘 읽어보고 저희가 협조할 일 있으면 잘 하겠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감사합니다. 세 분께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다음은 구의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겠습니다. 성북구를 위해서 또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의원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임태근 의원님은 못 오셨죠? 정해숙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구의원 (정해숙) : 안녕하세요. 정해숙 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만나서 대면 회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지역에서 낯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할 수 있고 눈으로, 마음적으로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또 그렇게 되는 것에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그만한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감사합니다. 오늘 뵈니까 빈자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소개한 위원님들을 빼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기존 위원님들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종수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천종수 위원 :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협의회장입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따라서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릉복지관 채성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채성현 위원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채성현입니다. 두 번째 회의 참석했는데요. 앞으로

도 열심히 하면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길음복지관 장민균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민균 위원 : 반갑습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장민균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고맙습니다. 월곡복지관 이병준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병준 위원 : 월곡복지관 이병준입니다. 저도 두 번째 참여인데 첫 번째 참여했던 것 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서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감사합니다. 승가원행복마을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운화 위원 : 성북구 주민들이 행복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김희자 성북구 통장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희자 위원 :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늦겠습니다.

(참석자들 웃음)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리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김운영 교육협력복지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운영 위원 : 안녕하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김운영입니다. 두 번

째인데 협의체가 잘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감사합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김용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 : 안녕하십니까, 성북장애인복지관 김용진입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보고 또 오늘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고맙습니다. 성북실무협의체 조일재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일재 위원 : 성북구 실무협의체 위원장 조일재입니다. 월곡복지관 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네 번째입니다.

(참석자들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다음은 성북구 20개 동 동복지협의체 윤재성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재성 위원 : 여러분, 저는 다 잘 아시죠? 제가 부탁 한번 드립니다. 우리 회의에 나오면 그냥 웃읍시다.

(참석자들 웃음)

반갑게 인사합시다. 그게 가장 분위기도 좋고, 좋아지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때마다 늘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고맙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뒤에 인사를 못 하신 공무원 선생님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V | 보고서항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협의체 운영현황보고를 사무국의 전세성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질의는 보고 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전세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 동협의체 위원장협의회, 20개의 동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위별 기능 수행 및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성북구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차 대표협의체 정례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및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심의 안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분과 연구활동 검토 등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협의체 미션·비전 수립 논의가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무분과 연구활동 및 운영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분과에서 첫 스타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 분과 내에서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 문제를 주제로 FGI 및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종합토론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구·동협의체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의체 이해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위원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요. 앞으로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구성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션·비전 수립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션과 비전은 수립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구성원 간 소통의 기회를 통해 협의체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월과 5월, 한국감마센터의 컨설팅으로 협의체의 정체성과 사회보장 영역을 돌아보는 과정을 진행하였고요. 6월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각이 담긴 컨설팅 도출 결과를 중심으로 미션과 비전을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 진행될 역량 강화 컨퍼런스에서 선포식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출된 미션·비전(안)은 미션, 성북구 지역사회의 협력과 소통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 비전,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현, 민관협력으로 지역복지력 강화,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확대입니다. 전략과제 수립 등 후속 작업 진행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미션·비전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9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동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사업 연계, 협력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동협의체위원장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협의체의 경우 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및 연계, 각 동 상황에 맞는 복지이제 발굴 및 실천을 위해서 20개 동 503명의 위원님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3월에 진행된 동협의체 워크숍에서는 동협의체위원장, 복지기관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 동별 4명씩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9명의 인원과 함께 민관협력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

니다. 자원 연계나 주민들과 밀접하게 만나야 하는 동협의체 위원장님들을 위해서 명함을 제작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북구청, 종합사회복지관, 동주민센터, 동협의체의 4자 컨소시엄 협약식을 진행하였고요. 동복지대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관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동복지대학은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지원방안이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20개 전 동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협의체 벤치마킹은 각 동의 위원장, 보건복지지원팀장 총 37명과 다녀왔고요. 수원시 협의체의 온마을복지학교와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유로 진행하였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협의체 활성화 및 운영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협의체 운영에 대한 지원은 제가 하고 있고, 나눔네트워크사업 추진은 김성원 간사님께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나눔네트워크 담당 간사 채용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등 사무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네트워크 3기 추진기간은 2023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개인 지원 692명 그리고 7,665만 2,000원. 기관 지원은 19개소 4,961만 9,000원으로 총 1억 2,627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운영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1쪽입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기념, 성북복지봉사한마당을 9월 19일에 기념식과 동별 팀빌딩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보다 참여 인원을 늘려서 구·동협의체 위원과 복지 공무원들의 협력의 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월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션·비전 선포식을 포함한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무분과에서는 장애인 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돌봄토론회 등 각 전문 영역에 맞는 연구활동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동협의체 성과공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보고를 처음 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전세성) : 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우리 사무국장님 처음 하시는데 생각보다 보고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전세성) : 감사합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기대 이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국장도 새로 구성되고 간사 분도 계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일이 굉장히 많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보고도 잘해 주셨지만 인수인계도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박수로 현황보고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다음에는 참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일재 위원 : 실무협의체 위원장 조일재입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맡으면서 1년 6개월 정도 협의체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북구는 지역사회협의체, 옛날에 복지협의체부터 서울시에서 저희 성북구가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고 다른 구에서도 저희 성북구를 보러 올 만큼 우수하게 전통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월에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사실 같이 협업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올해 또 임정선 과장님 오시면서 협의체에 힘이 실리면서 업무가 많이 탄력을 받았고요. 또 사회를 보시는 김경임 팀장님, 박효혜 선생님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면서 솔직히 벅찬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행사 성 보고만 12건이 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질문일 수도 있고, 건의일 수도 있는데 11페이지 보시면 전담 인력이 2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금방 보고하신 사무국장님 한 분과 김성원 간사님 계시는데 김성원 간사님은 나눔네트워킹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시느라 거기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혼자 하시는 건 아닙니다. 김경임 팀장님하고 박효혜 선생님이 많이 도와 주시지만 실제로는 협의체 업무를 하는 사무국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벅찬 상황이고, 저도 아직 임기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많이 좀 더 하고 싶고, 더 성심껏 잘하고 싶은데 인력 충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간사님으로 시작해서 올해부터 국장님이 되셨는데 저희 협의체가 좀 더 체계를 잡아가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실현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많이 증가가 되고 또 동북지협의체가 성북구는 동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20개 동이나 되는데 동북지협의체도 되게 활발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공동모금회 지원 하는 간사 한 분이 계신데 고유의 보장협의체 업무를 보는 사무국장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1명 더 인력이 충원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성 위원 : 그러면 직원은 누가 채용합니까? 여기서 채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죠.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아마 작년에 비하면 올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지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또 업무도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 적어도 앞으로

로 아마 내년까지 간다면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름대로 어디에 갖다 내놔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뿌리가 잘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도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올해 9월 19일 행사도 되게 크게 할 것이고 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20개 동이 전부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면 복지관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탄탄한 자리를 내려가면서 해 볼 것이다 할 것이고, 올해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 세 분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세 분이 정말 좋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의 역량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관장님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들이 같이 대화를 해 주고 많은 얘기를 해 준다면 그분들이 몰랐던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대표협의체에 계신 분들이니까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민균 위원 : 길음복지관의 장민균입니다.

아까 실무협의체위원장님이신 조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우리 성북구는 앞서 나간다, 제일 먼저 진행했다는 과거의 그런 네임벨류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이고요. 거기서 또 근무하는 민간기관의 저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무엇이나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상반기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변화가 예측되어 있고, 특히 하반기 때 행사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무국의 유지,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도 간사님

은 나눔네트워크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내에서 사무국장 한 분으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상반기에 미션·비전 수립이라는 부분들이 국어 사전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나 미션과 비전이 수립되게 되면 그 후의 핵심 가치와 또 실천과제들이 줄줄이 나열되면서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펼쳐진다는 말씀은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구의원님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서 우리 사무국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미션·비전 부분들이 잘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공유받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런 실천 과제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겁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무국에서 감당을 해 줘야만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모습을 적극 반영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문화 위원 :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보고 싶은데 11페이지에 향후 운영 계획에 보면 장애인 인권교육을 장애인 분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성북구 구민들의 장애인 당사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 장애가 있는데 어떤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신다는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전세성) : 장애인 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 대상으로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보고받은 내용에도 보면 성북구는 촘촘하게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활동들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동별로 다 구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업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동북지대학도 원래 20개 동 전 동을 다하는 자치구가 많지 않은데 전 동을 다 하고 있고요. 또 보고드린 지역 밀착형 사업도 전 동이 복지기관들이랑 연결돼서 동마다 고립가구 발굴 지원도

하고 있는데, 미션·비전 수립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나요?

○사무국장 (전세성) : 조사해 봤을 때 서울 지역에는 미션·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러면 성북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건가요?

○사무국장 (전세성) : 네,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지금도 한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보장협의체의 미션·비전을 했고 그 결과는 정리가 되면 세부내용은 나중에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나요?

○사무국장 (전세성) : 네, 저희가 일단 선포식은 10월에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정리되는 내용은 향후 진행되는 대표협의체에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러면 3분기 대표협의체 때 정리된 미션·비전이 여기서 나와서 한번 더 의견을 듣고 최종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역할을 추진하고 계시고 아까 간사 총원에 대해서는 실제 국장은 시비, 구비 50%, 50%로 나오고 그다음에 간사 한 분은 공동모금회 예산 안에서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비는 한 분 50%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추가로 한 분 정도 간사를 구비로 지원이 되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국의 고충이 훨씬 더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의견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원장 (김연은) : 다음은 성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추진에 대하여 조연희 복지기획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고 후에 질의는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조연희) :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조연희입니다.

(참석자들 박수)

’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설명에 앞서 새로이 위촉된 위원님들이 계셔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자원 등을 고려 지자체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 사회 보장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4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주민, 현장 전문가, 사업 부서 등 민관협력을 통해 국가정책에 부합,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사업의 종합계획입니다. 2007년 제1기를 시작하여 제5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으로 올해 첫 시작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먼저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개요입니다. 수립 대상은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대 추진전략, 35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과정의 협의체 위원 및 구에서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에서의 역할은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계획 및 이행실적을 취합, 모니터링 결과를 부서에 안내하여 실질적으로 계획 및 사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실무위원회 TF팀 참여, 대표협의체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사업 분야별 추진실적 확인 및 실무협의체 분과별 검토가 이루어지며, 결과 평가의 단계에서는 추진 결과 모니터링을 실시, 다음 연도 계획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실무협의체 검토, 대표협의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 내용입니다. 체감하는 현장 복지, 공감하는 삶의

복지를 비전으로 첫째, 서로 돌봄 사회구현 추진전략 아래 서울형 SOS 돌봄체계 활성화 등 5개 사업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최근 주목받는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로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 지원의 슬기로운 1인 생활, 정신건강, 다문화가족, 일자리·주거·심리 등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고립 청년 사업의 틈새 없이 탄탄한 지역복지 실현. 셋째, 불리한 여건에 놓인 구민의 차이를 고려한 함께 누리는 구민 생활지원을 추진체계로, 가족기능 회복의 온가족행복지원 체계 강화, 수요자 맞춤형 실버 프로그램 지원의 활기찬 노후 맞춤형 여가, 장애 유형별 평생학습지원, 구민 인권지킴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 민관협력 사업을 제고하고자 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적 추진, 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협의체 기능 강화,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복지 리더양성 동북지대학 운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규 시설이나 기존 시설 이전, 민관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소진을 방지하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계획 및 내용입니다. 모니터링은 연초와 비교하여 당초 의도대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중간 추진상황을 공유, 확인하고 복지환경 변화의 추이를 점검하여 실행 평가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시행 결과의 목표 달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 체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포함한 민관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보장협의체 8개 분과에서 각 사업별 모니터링할 사업들을 분류하였으며, 2022년에는 반기별로 실시했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좀 더 사업수행 이행 상황을 확인코자 각 사업 담당자 자체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실무분과와 사업부서에서 성과지표 및 예산계획 대비 이행 정도, 사업수행의 애로사항, 개선사항 논의 등 중간평가를 반기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 실시 결과 지표 등 변

경 사항이 필요할 경우 추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 보고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민간위원장 (김연은) :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다시 한 번 추진내용들을 오늘 보고해 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 8개 전략, 35개 세부사업을 짚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1인가구팀인가요? 아까 인사해 주셨는데 틈새 없이 탄탄한 지역복지 실현에 대한 전략과제로 슬기로운 1인 생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아직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 1인가구팀에서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인가구지원팀장 (김서연) : 저희 1인가구지원팀은 1월 1일 신설됐고요. 1인가구는 대 상 타깃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인구는 줄어드는 편인데 가구 구성원이 1인인 경우 그다음 1인가구, 아니면 주민등록상으로는 1인 세대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개념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 1인가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동아리활동 지원사업과 물품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과 같이 해야 될 협력들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 또 제일 이슈되는 게 사회적 고립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관련한 부분은 7~8월 중에 같이 기반을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1인가구에 대한 낙인감을 주지 않는 사업과 고립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깃을 조금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부분은 기관에서 의견 주시는 부분도 저희가 수용하고, 저희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나누어드린 리플렛은 기관별로 일부 안내해 드리는 사항인데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필요하신 기관 있으시면 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혹시 성북구 1인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가구지원팀장 (김서연) : 가구로 보았을 때는 19만 세대가 있고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전체 인구에서는 19% 정도 되고요. 가구 대비로 했을 때는 40% 정도 됩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서울시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금 높거나 서울시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1인가구지원팀장 (김서연) : 35% 정도….

○민간위원장 (김연은) : 37 점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성북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 높은 이유는 성북구는 대학이 여덟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대학을 다니면 주민등록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종암동 지역 쪽으로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지금 1인가구가 성북구에 대학이 많기 때문이라는 특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1인가구하고 정신건강, 자살예방, 고립 청년사업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민간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장계획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장민균 위원 : 우리 성북구의 복지시설 확충 및 보강 부분들에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정릉복지관 및 장위복지관 부지 확정 및 계획수립 그다음에 현대식 노인복지관 추가되는 이 부분은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얼마 전에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정이 돼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걱정,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현대식 노인복지시설은 일단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4구역에서 이전을 했는데 지금 14구역에 공공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언제쯤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을 임차하고 있다가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신 관계로 돌곶이역 앞으로 이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약은 5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이동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릉복지관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송곡초등학교 뒤쪽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우나 정릉동은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답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윤재성 위원 : 저희 월곡2동에서 다문화가정을 도와주는 부분을 하나의 안건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될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질문 한번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 위원장님, 죄송스럽게도 관련 부서들이 같이 오면 좋겠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성가족과 담당 팀하고 동주민센터와 연결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건 안 될까요?

○윤재성 위원 :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회의를 해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선물을 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물건이 똑같이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나온 얘기가 어쨌든 1인가족에서 도와주는 부분하고, 두 번째 나왔던 게 다문화가족을 도와주면 어떨것느냐 그래서 사실은 월곡2동 동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거고, 또 우리들이 나와서 그냥 개인끼리 토론을 한번 해 보는데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갈 길이 전혀 없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혹시 내가 7층에 오면 물어보고 갈게요.

○조일재 위원 : 월곡2동 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 월곡복지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월곡복지관 안에 다문화센터는 아니지만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국인분들과 같이 하는 사업도 있어서 저희 협의체 위원님, 팀장님 통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기관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민균 위원 : 성북구 가족센터가 실무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조일재 위원 : 대표협의체는 안 나오고 실무협의체만 있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실무협의체 안에 다문화가족센터가 고려대학교에서 운영하시죠?

○장민균 위원 : 성북구 가족센터로 명명이,

○민간위원장 (김연은) : 이름이 성북가족센터인데 그게 원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

강가족지원센터하고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운영하는데 고려대 옆에 있습니다. 거기도 센터랑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요새 저출산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협력방안을 우리 월곡2동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말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셨는데 비전이 ‘체감하는 현장 복지, 공감하는 삶의 복지’ 이렇게 해서 총 3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보니까 지금 계획수립 단계를 지나서 모니터링 단계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결과 평가 단계인 것 같아요.

○복지기획팀장 (조연희) : 저희가 반기별 모니터링 결과를 부서별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변경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러면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이 결과 평가가 매년 연차별로 이루어지나요?

○복지기획팀장 (조연희) : 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래서 올해도 현재 모니터링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협의체에서 각 위원들이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과의 협력사업들을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계속 각 분과별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도 해 주셨고 또 답변도 주셨는데요.

VI 안건 심의

○민간위원장 (김연은) : 다음은 안건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대표협의체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복지연계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고요. 구청장님은 이따 오시면 잠깐 회의 멈추고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안건은 작년 제3차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이고요. 올해 5월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으로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이어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주요 내용은 회의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의 2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10명이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겸임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는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의결 내용은 총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운영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외의 위임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구성의 기본사항이어서 12쪽 아래쪽에 보면 대표협의체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 기능 중에 어떤 것들을 위임할 수 있는지를 오늘 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선임입니다. 저희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님이신 김연은 관장님이 겸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호선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선정입니다. 전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논의하고 심의

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처우개선위원회 그다음에 위임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님들 중에 전문가 기관에서 선정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 위원은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10명 이내에서 8명이 돼도 되고, 9명이 돼도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오늘 첫 번째 안건이 전문위원회 구성인데 지난번 협의체 때 전문위원회 구성을 하자. 그리고 전문위원회 구성 안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위임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그 부분 전문위원회 활동내용, 운영내용은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관련된 사항과 그다음에 기타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 두 가지를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명, 9명, 10명 안에서 적합한 분들을 선임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순서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외의 위임사항을 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사항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먼저 할까요?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의 관련된 활동은 전문위원회 활동으로 지난번에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활동은 포함이 됐는데 추가로 대표협의체의 업무 중에서 전문위원회에 위임했으면 하는 사항을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올해도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이 대표협의체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법인이나 해당 사업 부서에서 분기별로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법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

는데 그냥 저희가 만약에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협의체에서 세 분을 추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많고 시기를 촉박하게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위임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을 위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 내용을 보면 법인의 사외이사 추천 건으로 해서 성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대표협의체의 추천권으로 와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수시로 오다 보니까 대표협의체 위원들 전체한테 서명받고 의견받는 게 실무적으로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전문위원회가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 거기서 어쨌든 이 내용은 논의보다는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 그 법인에서 우선순위로 요청한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존중해서 선정을 하는데 위임을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고, 아니면 지금처럼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의 서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임이 좋겠다, 아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시면 결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운화 위원 : 전문위원회가 만약에 구성돼서 위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다 하고 대표협의체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민간위원장 (김연은) : 위임하면 결정된 것은 대표협의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모든 부분은 대표협의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기본적으로 전문위원회에서 하고요. 또 대표협의체를 열게 되는 시기에는 대표협의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협의체….

○신운화 위원 : 급하게 들어올 때만 전문위원회에 위임….

○민간위원장 (김연은) : 네, 위임사항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대표협의체에 내놓고 지금처럼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병준 위원 : 그러면 소위원회 형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네, 그렇습니다.

○이병준 위원 : 결정을 빨리하기 위한 그런….

○장민균 위원 :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전문위원회에서 제4의 6번, 7번을 한다는 말씀인
가요?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지금 장민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12페이지의 대표협의체 기
능 중에서 6번, 7번은 전체적으로 논의하기가 조금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항도 있
고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 부분은 어쨌든 지난번에도 결정됐지만 사회복지에 관련
된 기관, 단체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해서 6번, 7
번, 두 가지 사항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신문화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임을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는 거겠죠?

○민간위원장 (김연은) : 네.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참고로 7번은 위임사항이 아니고요. 12쪽 맨 위에 제5조
의2, 전문위원회 구성에서 처우개선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임사항은 6번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문화 위원 : 저는 동의합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동의 있으셨고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다른 분도 다 “可”하시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사항은 전문위원회 위임사항으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문위원회 위원장 선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겸임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호선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민균 위원 : 전문위원회 관련해서 아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예민한 부분들도 하게 되는데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임하는 게 업무의 효율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따로 또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호선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겸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재성 위원 :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겠습니다.

(참석자들 웃음)

○민간위원장 (김연은) : 여기에 겸임 또는 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겸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이니 아니면 동의, 재청 말씀하셔도 좋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회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심의하는 위원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이 겸임해서 다음에 전문위원회 모임 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안건까지 말씀을 주셨고요.구청장님 오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까지 하고요.

청장님이 외부일정이 하시다가 급히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이승로 구청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VII 위촉장 수여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청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신규 위원 위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위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은 이승로 성북구청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위촉장』

국민건강보험공간 성북지사장 김도훈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7월 5일

성북구청장 이승로

(참석자들 박수)

위촉장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전선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청장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다음은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죠?

○민간위원장 (김연은) : 청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 오늘 국회에서 평생학습관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서울지역 대표를 맡고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오늘 또 이렇게 회의하는 중간에 들어와서 방해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그래도 우리 성북 지역의 관이나 공동체들에서 대표성을 띄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에 막강한, 든든한 그런 지킴이 역할들을 해 주시죠. 그리고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여러 동 복지협의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아마 우리 성북구 전체 복지의 총괄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죠. 매달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새로 두 분 위촉되셨는데 저희와 또 직접 연관되는 대상자분들이 위촉되셨어요. 그래서 좀 든든하고요.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촘촘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여러 영역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네요. 밖에 나갔다 오면 책상에 '동향보고'라고 해서 때로는 고독사나 변사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접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영아들 유기하고 이런 사건들도 비일비재하고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어요. 우리 전선미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성북서나 종암서나 의뢰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지역

사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 영역 외에, 우리 행정 손길 외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잠복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동에 보면 동장님, 통장님, 반장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름대로 끊임없이 매주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동장님, 통장님 이용하세요. 반장님 활용하세요.” “몇 분씩 역할 분담을 해서 전화 한 번씩 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일들에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안)들을 제가 잘 담아서 지금보다 더 세련된 모습으로 관리할 생각 이니까 여러분들이 회의 석상에서 기탄없이 주변의 사례라든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언제 한번 시간을 오전 중에 잡으면 점심시간 즈음해서 회의 끝나고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 계속 일정이 20분, 30분 단위로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나가야 됩니다. 혹시 저한테 주실 말씀….

○민간위원장 (김연은) : 한 가지 있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 있어요?

○민간위원장 (김연은) : 아까 우리 한참 논의하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이 현재 국장하고 간사가 있는데요. 간사 한 분은 공동모금회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국장 인건비는 시비랑 구비 50%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비 나가는 것은 국장에 대한 50% 인건비가 나가는데 성북구가 20개 동 전체 사업을 촘촘하게 하다 보니까 사무국에 직원 1명이 충원되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청장님이 오시면,

○구청장 (이승로) : 사무국은 어디서 운영하죠?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사무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협의체 사업을 원활 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원장 (김연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진행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 직원 파견은 내가 볼 때는 안 돼. 직원을 파견하면 안 되지.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저희 직원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김연은 위원장님께서서는
구비 편성을 해서 사무국에 직원 1명을,

○구청장 (이승로) : 일자리 시장형 말고 이런 데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걸 고려를 해 봐요.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네.

○구청장 (이승로) :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래서 어쨌든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승로) : 현재 우리 과에서 직접 보조자 역할을 하지 않나요?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구단
위, 동단위 협의체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협의체
에서는 전문적으로 협의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하면 자주 바뀌고,

○구청장 (이승로) :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좀 어
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간사는 어느 분이 맡고 계시죠?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지금 사무국장님으로 전세성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요. 협의체 업무 전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사님은 나눔네트워크 전담 인력으
로 지금 공동모금회 예산을 받아서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이승로) :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지법인재단도 생각을 하고 있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연동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로
독립된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그게 만약에 실행된다고 한다면 산하에 두는 것도

관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로 포괄해서 같이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 국장님, 새로 오신 국장님이니까 이번에 승진하셔서 꺾발이 최고예요.

(참석자들 웃음)

○민간위원장 (김연은) : 청장님께서 조금 더 발전(안)을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아주시도록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구청장 (이승로) : 다른 건 없으시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먼저 이석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바쁜 일정에도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이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사무국은 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안건 관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위원 선정 건인데 참고로 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 자료를 보시면 3페이지에 참여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에 참여 분야가 당연직이 있고 복지, 교육, 구의원, 공단, 법

인, 주거, 경찰, 의료, 직능단체 이런 식으로 쪽 분야별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10명 이내로 전문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빼고 9명이거든요? 그런데 주 내용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하고, 성북구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것, 일부를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주로 사회복지 업무랑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관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선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복지 쪽에 계신 분들하고 또 당연직으로 계신 분들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학과 동덕여대 교수님도 계시고 법인도 사회복지시설 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 쪽에 관련되신 분들, 아마 이렇게 몇 개 분야에서 관련되신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선임을 다 채울지, 아니면 집행부에 위임해서 여기와 관련돼서 논의하실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한테 동의를 구하고 선임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원들을 선임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민균 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선임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그 내용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분야별로 시설장님이라든지 교수님들이 배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출석도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해가 되고 동의가 된다면 위원장님과 집행부인 복지정책과에서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논의해서 그것을 설정하셔서 추후 회의 때 공유해 주심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러면 장민균 위원님은 집행부에 위임해서 관련된 분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혹시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내가 한번 참여해 보거나 이분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말씀주셔도 좋고요. 또 우

리 정해숙 의원님도 계시니까 위임에 대한 의견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해숙 위원 : 제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계신 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꼭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안 계신데 그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의견도 여쭙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우선 여기서 먼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을 우선 하고요.

○민간위원장 (김연은) :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성상 복지 쪽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쪽, 법인 쪽, 당연직 관련되신 분들이 아마 많이 포함될 것 같고요. 우리 정해숙 의원님부터 어떠십니까?

○정해숙 위원 : 저는 글썄 ‘여기에 꼭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구의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요. 보건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인데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에 오면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난처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 하면 세밀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저희가 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구의원을 그 자리에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구의원을 거기에 안 넣어도 생각하고요. 전문적으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구의원들 먼저 말씀해 주신 건 저희들 존중해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굳이 이 자리에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 잘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정해숙 위원님께서 너무 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또 처우개선위원회, 민간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사실 예산 관련된 것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좀 사실 부담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정해숙 위원님께서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정해숙 위원 : 예산에 관한 것은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예결위에 들어가는데요. 예결위에 올라오는 게 있으면 어느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굳이 마다할 의원들은 없어요.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조적이고 어느 의원이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갈 건데 이런 사안들을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심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그때 또 확인하시고 의견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의견 주시죠. 지금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집행부에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선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선정 건은 집행부에 위임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한 8명에서 10명 사이로 구성하면 되겠죠? 꼭 10명 다 채우지 않아도 되죠?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네, 관계없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러면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회 안건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전문위원회 위임 건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논의와 질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논의될 사항이 있나요?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에 있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건 심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홍보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 홍보 관련된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제가 간단하게 구정 홍보를 말씀드리는 사이에 심의의결서에 위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 건강 증진을 위한 성북구 동행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3쪽입니다. 사업 시행일은 금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동행센터'로 네이밍이 변경됩니다. 코로나 이후 65세~70세 도래 어르신 보편적 방문을 진행하였는데요.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방문에 대한 거절, 거부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워지고 반면 빈곤 위기 및 고립 가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찾동사업을 위기가구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방문체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인가구 물품대여 사업입니다. 대상은 성북구 거주 1인 가구이며, 성북구청과 청년공간 '동선이음'에서 대여해 주고 있으며, 물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물품 품목과 대여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북구민 안전 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 보험을 구청이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 물놀이사고, 화상, 스킨존 교통사고, 대중교통 상해가 이에 해당되오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홍보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구정홍보 두 가지 보고해 주셨고요. 그러면 성북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동행센터로 이름을 다 바꾸신 건가요?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네, 성북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가 다 됩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서울시 전 동이 동행센터로 바뀌는 거예요?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위1동 동행센터,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그런 게 아니라 사업명이 바뀌는 겁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사업명이요?

○사회 (복지연계팀장 김경임) :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명이 동행센터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보편적 방문이 있고 출산 가구, 모니터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종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고립가구에 대한 집중 선별적 돌봄하겠다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위원장 (김연은) : 원래 동주민센터 고유명칭 그대로 있고 사업명칭이 동행센터로 서울시 전체가 바뀐다는 얘기사죠?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 바뀐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오세훈 시장 전까지는 박원순 시장이 '찾동'이라고 해서 보편적 복지 행정을 하면서 65세 이상 전 가구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동을 살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호 관리도 해 왔었는데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로 해서 집중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찾동사업을 거의 폐지하다시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바뀐 겁니다. 동행이라는 말을 성북에서 가장 먼저 썼는데 또 오세훈 시장이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자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성북구민 안전 보험과 또 서울시 안전 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고 시 중복보장이 되나요? 아니면 성북구면 성북구, 서울시면 서울시 한 가지만 보장이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 이거는 사고니까 중복보장은 안 될 겁니다.

○김희자 위원 : 알겠습니다. 여쭙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 실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민간위원장 (김연은) : 혹시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VIII 폐 회

○민간위원장 (김연은) : 그러면 오늘 제3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고 다음 3분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폐회 16시 25분)